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5.(일) 11:00 < 3.6.(월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3. 3.(금)
담당 부서	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전민영 (043-870-5520)
		담당자	사무관 서준호 (043-870-5522)
			연구사 박수진 (043-870-5528)

국표원,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!

- 국표원·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협상으로 수입품 규제 강화 유예 및 통관 재개 -

□ **우즈베키스탄**은 지난 12월 **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**하는 내용을 발표(`22.12.3)*하였으며,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**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**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.

*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(D등급 이하 → B등급 이하)되며,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

○ 이에,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진종욱 원장)**은 **무역기술장벽(TBT)* 신속대응반을 구성**하고 3.1(수) 오전 **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**을 통해 **수입·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**했다.

* 무역기술장벽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, 표준,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(비관세장벽)

○ 협상 결과, **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**하였으며,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**통관이 재개**되어 삼성·LG전자 등 **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**되는 성과를 도출했다.

□ 아울러, 국표원은 3.2(목) **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(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)을 방문하여**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, 향후 **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**했다.

○ 특히,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*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,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**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,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**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**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**이다.

*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,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

□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"**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**하는 상황에서 **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(TBT)은 더욱 강화될 것**으로 전망된다." 면서,

○ "앞으로도, **무역기술장벽(TBT)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**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**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**해 나가겠다."고 전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